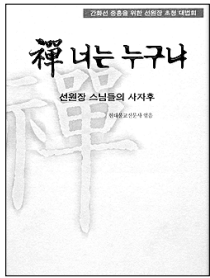


도심에 올려퍼진



선사들의 사자후



釋,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 여시아문 | 9천원

도심에 '선 수행' 바람을 불러일으킨 선두주자인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에서 펼쳐졌던 김로법문이 책으로 묶어 나왔다. 지난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이 법회는 산중에서 30~50년간 수행 정진 해온 선지식들이 도심에서 잇따라 법문을 펼친, 한국 불교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만하다.

『釋 너는 누구냐』에서는 고우 스님(간화사 선덕)을 비롯해 무여(축서사 주지) 해국(석종사 선원장) 대원(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함주(법주사 총지선원장) 현산(화엄사 선등선원장) 현웅(육조사 선원장) 스님 등 선원장 스님 11명과 조계종 총무원장 범장 스님의 설법 현장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미처 법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법문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선사들

선수행 바람 몰고 온 전국 선원장 초청 법문·즉문즉답 실어

의 법문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똑같은 법문이라도 듣는 이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그 감동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의 본질과 의미' '화두 드는 법' '선 수행의 요체' '선과 깨달음' 등을 주제로 '간화선 위기론'의 해법을 제

시하고, 재가신도들의 수행을 고취해 수행의 대중화를 유도하기 위한 스님들의 고뇌와 열정이 '살아있는 법문'을 통해 생생히 느껴진다.

선방에서 직접 수좌들과 함께 실천할 수하며 선 지도에 앞장서고 있는 선원장 스님들이, 간화선 수행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가를 자상하게 풀어준 이 책을 통해 참선에 대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불성(佛性)이 내 몸의 일부에 잠철 속의 금덩어리같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듣고 보는 마음과 몸품이도 다 부처입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여서 똑같은 기능

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냐! 내가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우 스님 법문 中)

"옛 선사들의 말씀에 '발심 있는 곳에 화두 있고, 화두 있는 곳에 발심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발심을 하면 화두 안되는 것을 한탄하고 괴로워할 것이 없습니다." (무여 스님 법문 中) 법문 후에 이루어진 즉문즉답(卽問卽答)도 고소란히 지면에 옮겨졌다. "윤회하는 주체는 무엇인가? '참 의심은 어떻게 내는가?' 등의 질문에 선사들이 던지는 '할(囑)'을 찾아보는 것도 이 책의 묘미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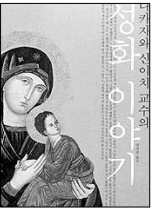
■ <만해 한용운> (신종철 글/만화, 세상모던책, 9천원) = 만해 스님의 서거 60주년을 맞아 만해가 신종철 씨가 만해 스님 전기를 펴냈다. 책은 만공 스님이 만해 스님의 아들 보국에게 스님의 일대기를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한자어 풀이와 3.1운동 관련 자료도 참고가 될 만하다. 신 씨는 "누구나 즐길 외는 '님의 침묵'의 만해 스님이 아닌 '교과서 밖의 한용운'을 그리려 했다"고 말한다.



■ <불교만화 이야기 11> (불교만화연구소 펴냄, 3천원) = 불교만화연구소가 전하는 11번째 이야기. 이번 호에서는 성철 스님의 법문과 지장제일·우란분절의 유래와 의미를 만화로 볼 수 있다. '부처님의 생애로 배우는 영어회화' '백유경 이야기' 등의 코너도 눈에 띈다. 한편 불교만화연구소는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4회 전국불교만화공모전'을 개최한다. (02)3392-0334



■ <성화 이야기> (나카자와 신이치 지음, 양영관 옮김, 교양인) = "만다라는 인간의 의식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탐사도구다." 일본의 신화인류학자 나카자와 신이치는 종교적 의미의 도상(圖像)인 '이콘(icon)'을 인류학적, 종교적 상징으로 새롭게 풀이한다. 불교의 만다라부터 기독교 성화, 아메리카 원주민의 성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의 이콘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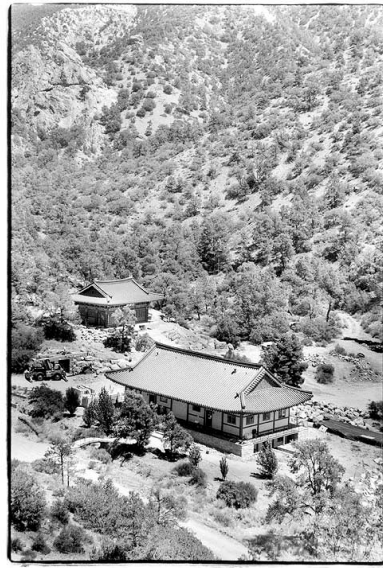


美 사막 한가운데서 10년째 절 짓기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한복판에 한국식 사찰 '태고사(영문명 Mountain Spirit Center)'를 짓고 있는 미국인 무량 스님이 수행기 <왜 사냐가>를 펴냈다. 책 출간을 위해 10월 11일 입국한 스님은 "스승님인 승산 스님의 가르침대로 '오직 할 뿐'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10년째 절을 짓고 있다"며 "언제 절이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짓는 과정, 즉 노동 수행의 의미가 더 중한 만큼 그저 '오직 할 뿐'이다"고 말했다. 예일대 지질학과를 다니던 청년 에릭(Eric)은 승산 스님을 만나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게 됐고, 1983년 '무량'이란 법명을 받아 한국 불교로 출가를 했다. 이후 그는 '걷기만행'으로 유명한

원공 스님과 함께 전국을 만행하고, 대둔산 태고사에서 불사를 돕는 열의(노동)을 하기도 하며 불교의 가르침에 젖어들었다. 만행을 마친 후 미국으로 돌아간 스님은 1993년 지금의 태고사 터를 발견하고 절을 짓기 시작했다. 물도 전기도 없는 사막에서 스님은 폴클레인과 트레일러 등의 중장비를 구입해 본격적인 사찰 건립에 착수했다. 스님이 '올력 수행'을 하며 태고사를 짓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국적을 초월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는 것. 이를 통해 정신적 스승인 승산 스님의 가르침과 한국의 불교문화를 미국인에게 소개하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는 환경친화적인 삶의 양식을 시험해 보는 것이다. 태고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양열과 풍력을 주로 이용했고 빗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붕에 물받이를 만들어 두기도 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게 스님의 지론이다. 첫 건물인 요사채가 지어진 2000년부터 태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세워진 태고사 전경.

고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최근에는 일요일 회 때 마다 2000여 명의 사람이 모여들만큼 유명해졌다. 스님은 얼마 전 전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평화의 종'을 주도하기도 했다. "나는 특별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닌 단지 수행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책을 통해 지난 세기에 부풀려진 이야기를 바로잡아 평범한 수행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너와 나, 주체와 객체가 따로 없는 '오직 모를 뿐'의 마음을 참구해 나갑시다." 여수령 기자

故 조태일 시인 추모 시선집



나는 노래가 되었다
신경림 엮음
창비 | 8천5백원

故 조태일(1941~1999) 시인의 5주기를 맞아 시인의 시세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시선집 <나는 노래가 되었다>가 출간됐다. 신경림 시인이 선자(選者)로 나서 450여 편의 시 중에서 115편을 직접 가려 뽑았다.

이번 시집의 특징은 기존의 시선집과 달리 시집 출간의 역순으로 시를 배열했다는 점이다. 신경림 시인은 "그의 시는 (별명) 시가개뿔로 오면서 더 아름답고 날렵해진다"고 밝혔다. "어머니를 찾아서"와 "태안사 가는 길" '노을' 등을 비롯해 1980년대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국토' 연작, 초기시인 '아침 선박' 등을 볼 수 있다.

전남 곡성의 태안사에서 태어난 조태일 시인은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아침선박'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아침선박> <식칼> <국토> <자유가 시인이다> 등이 있으며 편운문학상(1999)과 만해문학상(1995)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시인이 태어난 전남 곡성군 태안사 경내에 '조태일 기념관'이 건립되기도 했다.

금주의 베스트북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오체부지	한경혜	반디미디어
2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통 스님	효림
3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도법 스님	아름다운인연
4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른아침
5	홀로 사는 즐거움	범정 스님	샘터
6	홀로 사는 즐거움	달라이 라마	오래된미래
7	선방 가는 길	정찬주	열림원
8	선사들이 띄우는 깨달음의 편지	정년 스님	장승
9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김성현	불교시대사
10	천문학자가 풀어낸 금강경	이시우	도피관사

도서 안내: (02)737-0695



바로보인 환관고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혀주지 못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놓은 환관고기.
건강대선사의 인가계지인 대한문제연구소에서 평안중사의 인물로 바로보았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달마선원

사단법인 참나찾기지도사회

부설 한국선심리치료명상원
마음의전화
원효무애출전승보존회

조실문 윤혜암 대선사
이사장 청광도각
원장

신도회·이수자·임직원 일동

■ 서울시 마포구 아현3동 614-23
TEL 02)738-1275
핸드폰 016-301-4080

대각정사

주지해각

사부대중일동

■ 대각불교대학 무료강의
(1, 3주 일요일)

■ 서울 강서구 화곡2동 835-3
TEL 02-2699-6384

승복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울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역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조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숨없이 누비(한국산 솜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조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역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조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울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조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계열모직 250,000
실크 · 금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선도용 쪼개, 바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8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전시장: 053-256-0108
공장: 053-425-4449
휴대폰: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 (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토굴(心자 도량)안내

가야산(1,430m)과 단지봉(1,327m)이 천을(天乙), 태을(太乙)로 받쳐주어 일체 흥액을 떨하는 곳 1,000m 준봉 7개가 둘러싸고, 봉우리 5개가 마음 심(心)자를 그려내는 해발 650m 고지의 3리 포천 계곡의 최상부 절경 10m폭 계곡은 비경중의 비경 숨겨진 가야산 수행터임, 3km 절 뒤 입도는 청정 무공해 산책길

- 전기, 전화, 진입로 포장
- 대지포함 500평
- 위치: 성주군 가천면 포천계곡내
- 가액: 답사후 상의

문의 011-9366-8929